

보도 일시	2022. 4. 1.(금) 조간	배포 일시	2022. 3. 31.(목)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	책임자	과 장 고영호 (02-2100-2660)
		담당자	사무관 김민석 (02-2100-2661)

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시가평가제도 단계적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

- ◆ **금융위원회**는 2022.3.30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**금융투자업규정**에 대한 **개정안**을 의결
- ◆ **법인형MMF** **시가평가제도**를 **단계적으로 시행**하고, 시가평가제도의 **연착륙**이 가능하도록 **준비·이행 상황**을 점검할 예정

1. 추진 배경

- '20.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법인형 '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'(MMF)의 시가평가제도가 '22.4.1일부터 시행 됩니다.

< 법인형 MMF의 시가평가 도입('20.3.30일 개정) >

- **(기존제도)** 집합투자기구(펀드)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나, MMF에 한해 장부가의 괴리율이 0.5% 이내인 경우 장부가 평가 허용
 - 그러나 괴리율 확대시, 선(先)환매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가격으로 환매받을 수 있어 대규모 환매 유발 가능성
- **(개선사항)** '22.4월부터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·시행
 - 법인형 MMF 중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'안정적 자산'의 비중이 30% 초과하는 경우,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 허용
 - 시가평가 방식의 법인형 MMF에 대해서는 적극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가중평균만기(듀레이션)를 120일로 확대(현행 75일)

-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, 법인형MMF가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.
- MMF가 장부가평가를 선호하는 가운데 안정적 자산 비중 30%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CP·전단채 등의 매도와 국공채의 매입 등 편입자산(포트폴리오) 조정이 불가피하여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 제도시행에 앞서, 시가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 (금융투자업규정 개정)

2. 주요 내용

- **(단계적 전환)** '22.4.1일 이후 신규 설정되는 MMF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, 기존 법인형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이행합니다.
- 현재 설정·운용 중인 법인형 MMF의 경우 안정적 자산비중이 30%이하로 낮아지더라도,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*하면 장부가 평가를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편입자산(포트폴리오) 조정을 1년에 걸쳐 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* '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'함이란, 일정기간(예 : 週間) 금융투자업규정 (개정안 제7-36조제1항제2호 각 목)에서 정한 자산의 취득이 그 밖의 자산의 취득보다 많은 것을 의미
- **(완충기간 부여 등)** 안정적 자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, 일정 요건(집합투자규약상 기재)을 갖춘 장부가평가 MMF에 대해 시가평가 전환의 완충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.
- **(안정적 자산의 범위 확대)** 증권금융회사 및 우체국 예치금, 특수 법인의 기업어음증권(CP) 및 단기사채, 최소증거금률* 요건 등을 충족한 RP매수는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합니다.
- * 안정적 자산에 추가되는 환매조건부매수(RP)의 최소증거금율 요건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(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)을 통해 규정할 예정

- **(완충기간① : 안정적 자산 비중 평가 관련)** 안정적 자산비중이 30%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3영업일 내 회복하면 장부가 평가가 가능합니다.
- **(완충기간② : 대량환매 관련)** 또한 일시적·일회성 대량환매*로 안정적 자산 비중이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, 시가평가 전환을 10영업일 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.
 - * 일시적·일회성 대량환매의 예시 : 1영업일간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2영업일간 누적하여 그 비율이 15%를 초과하는 경우 등
 - 다만, 해당MMF는 일시적·일회성 대량환매가 발생할 때 장부가 평가 중단 등 선(先)환매유인 관리조치를 미리 마련하여야 합니다.
 - * (선환매유인 관리조치) MMF내 안정적 자산비중 감소, 시가·장부가 괴리를 확대 및 환매 유인 발생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자 보호·관리방안

3.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금년 9월부터 분기별로 법인형MMF 시가평가 제도의 준비·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.
- ☞ 개정 규정은 '22.4.1일(금)부터 시행(기존 MMF에 대한 자율시행 포함)될 예정입니다.
- ※ 개정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www.fsc.go.kr / 정책마당 / 법령정보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	책임자	과 장 고영호 (02-2100-2660)
		담당자	사무관 김민석 (02-2100-2661)
<공동>	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	책임자	국 장 박재흥 (02-3145-6700)
		담당자	팀 장 문상석 (02-3145-6702)

□ **(MMF란)**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oney Market Fund, MMF)는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채권, 어음,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('96.9월 도입)

○ MMF는 금융기관·기업·정부의 단기자금 조달의 중요한 원천이며, 비금융회사의 유동성 수요 관리 및 유희자금 투자에도 널리 활용

*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단기간 예치해도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금수령 가능

□ **(시장규모)** 국내 MMF 규모(순자산가치)는 136조원으로 투자자 구성에 따라 법인형(113조원), 개인형(23조원)으로 구분('21년말 기준)

<국내 MMF의 보유자산>

구분	채권					CP	예금	콜론	CD	기타	계
	회사	금융	국고	통안	기타						
금액 (백억)	1,852	1,926	144	55	237	5,047	1,858	92	26	2,402	13,645

□ **(규제)** MMF는 현금등가물로서 활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, 가치유지 및 유동성관리를 위해 엄격한 운용규제를 적용

<자본시장법상 MMF규제 주요내용>

- ① **(편입대상자산)** 만기 6월이내 CD, 만기 5년이내 국채, 만기 1년이내 지방채특수채 회사채(주권 관련 및 사모사채는 제외)·CP, 어음, 만기 6개월 이내의 예치금, MMF, 전자단기사채 등으로 제한(영§241①, 규정§7-16)
- ② **(잔존만기)** 채권CP외의 자산의 최대잔존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, MMF 전체의 가중평균잔존만기를 최대 120일 이내로 제한(영§241, 규정§7-15④)
- ③ **(시가괴리율)** 장부가격과 시가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, 그 차이가 $\pm 0.5\%$ 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(법§238①, 영§260③, 규정§7-36③)
- ④ **(신규설정제한)** 유형별(개인·법인별 또는 평가방식별)로 설정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까지 신규 MMF 설정 금지(영§241②)
- ⑤ **(신용등급요건)** 채무증권을 편입할 경우 상위 2개 신용등급(채권 AA이상, 전자 단기사채 A2이상) 이내로 제한(규정§7-17)
- ⑥ **(분산투자)** 자산총액 대비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5%, CP 3%(최상위 등급), 동일인이 발행한 투자증권 및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10% (규정§7-19)
- ⑦ **(유동자산보유)** 자산총액 대비 1일 유동성 10%, 7일 유동성 30% 이상 보유 (규정§7-16)